

기술제일주의로 승부를 건다.



● 동서전자 장기선 사장
● CATV 기기산업협의회 감사

“

CATV기기, 방송장비 등이 잘 발전이 되면 여기에는 복합적인 전자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산업도 활성화가 잘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가전산업으로도 파급이 되어서 전자제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이 될 것입니다.

”

귀사의 주력제품을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는 오디오/비디오 관련장비, 다시 말해서 Broadcasting System이 주 생산제품입니다.

특히 Audio/Vidio Routing Switcher는 100% 우리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국내 최초의 방송국 및 CATV 방송국용 Routing Switcher로서 32개의 Audio(stereo) 및 Vidio신호를 32개의 각 출력으로 자동전환하는 스위칭 장비입니다.

또한 방송중계장치가 있는데 '90년 북경 아시아게임용 Commentator System을 설치, 운용할 정도로 그 우수함을 입증했습니다.

최근에는 CATV 관련 자동송출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CATV가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 화면을 내 보내게 되는데 컴퓨터에 10개 채널을 다 입력시켜 주므로써 방송용 오디오 콘솔로서 방송에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Audio Mixing Unit는 국제적인 품질로서 아주 우수합니다.

이런 방송장비분야는 국내 방송국에 나가고 있는데 일본, 영국에 비해서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CATV 업계가 성장하려면?

한 예로 북경에다 중계방송장비를 수출한다는 것은 기술뿐만아니라 86아시아게임, 88 올림픽 등을 치러본 소위 방송문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송문화를 알아야, 올림픽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알아야 장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경험이 수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전자기술만 가지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미디어분야가 발달하려면 장비를 사용할 방송이나 제작자들이 같이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분야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업계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체 능력만 가지고 발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제품이 쓰여지는 기업주변에 있는 기업환경이 같이 커 나야가야 합니다.

기술적인 분야만 보더라도 신진국에서 상당히 오래전 부터 발달되어 왔는데 우리 동서전자도 대부분 처음 시작한 것이 많습니다. 또 오래 됐지만 우리가 15년 됐다고 하는 것은 짧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에서 본다면 아직 어린 회사입니다.

경영철학 및 CATV업계 실태를 말씀해 주시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15년동안 일관적으로 보여 준게 있다면 기술제일주의 입니다.

기술선진화를 중점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CATV기기의 국내 수요량은 수천억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수요처가 90% 이상을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민간방송 3사가 설립됐습니다. 교통방송국에는 우리 국산 방송장비가 일부 들어가 있지만 불교방송, 평화방송은 95% 이상 수입장비를 쓰고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우리 업계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국산제품이 품질이 뒤져서 그렇다면 할말은 없지만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CATV기기 산업이 관련 산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CATV기기 산업이 발전이 된다면 전자산업이 발전하게 될것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CATV기기 분야를 전자산업의 한분야로 좁

게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좀더 큰 시각으로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CATV기기, 방송장비 등이 잘 되어서 수출이 늘어나고 따라서 전자수출이 잘 된다면 여기에는 복합적인 전자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산업도 활성화가 잘 될것입니다. 이것이 가전산업으로도 파급이 되어서 전자제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CATV기기 산업이 발전 되기를 희망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이 모든 부문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은 NEC 방송국이 관련산업을 주도해 나아가 부품, 가전까지 파급이 되어서 세계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송장비 분야를 좁게만 보지 말고 광의의 산업으로 보아서 중점적으로 육성이 된다면 관련 전자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CATV 산업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자금이나 기술력을 기업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CATV 산업이 막 생겨나서 준비도 없이, 기술력도 없이 시작하게 되는데 우선 판로 쪽을 개척해야 합니다.

현재 보면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때 보다 방송장비의 국산화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국내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국내 수요처에서 써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수요자들이 의식도 바로 되어야 합니다.

강제로 할 수 없겠지만 여러가지로 설득한다든지 의식개선을 시켜서 국내 방송사나, 관공서에서 국산화된 장비를 많이 쓰게 해야 우리 업계나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전자산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동안 정부 정책자금으로 지원한 과제들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정부예산안으로 집행되는 것은 국산화되는 것은 국산화로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국산제품을 사용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앞으로 국산화된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자들의 의식도, 또한 정부의 정책도, 좀더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CATV 육성정책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는?

CATV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시기가 지나서 사전 준비작업이 늦었다고 합니다.

이런것은 관련업체가 미리 준비좀 많이 해가지고 정부나 업계가 손발이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계획대로 사업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계획대로 하자면 업계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질이 나쁜 국산제품을 쓴다든가 하는 것이죠.

둘째는 수억내지 수백억짜리 외제장비를 쓴다든가 하는것 이거든요.

이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산업정책은 정부나 업계가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홍보도 하고 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CATV 업계의 발전과제가 있다면?

CATV 관련업계 발전을 위해서 방송망 운영국을 할 업계에서 8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 관련업계에서 지원을 받기로 희망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난항입니다.

그 부분을 추측해 보니까 장비를 수입해 오느것을 막고, 장비나 S/W 등 여러가지를 국산화 한다면 운영국 업체들이 5~8,000천억 이익이 됩니다.

투자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CATV기기 산업협의회 기금 800억 정도는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업계에서 실리적 경제적으로 본다면 CATV업계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지원을 해서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외화유출이 줄어들고 국가적 이익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CATV업계의 발전차원에서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